

가정 예배 모범

- 2022_07_1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7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의 이름 안에서”(찬양의 제사 드리며)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우리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20절)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성소는 물론 성소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성소의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24,2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기억하며 서로에 대해 사랑의 선행의 모습을 실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습관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위해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가정이 최악 된 습관에서 떠나 사랑과 선행을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